

기본급 141,300원 인상!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저하 금지!
노조활동시간 보장! 발암물질 및 CMR독성물질 사용금지!



지부교섭 속보

4호

2025.05.15(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4차 지부교섭_ 질의응답 ② 임금의 정의 / 노조활동시간]

질의응답 마무리 이제 본격 논의 시작



질의응답 두차례 완료

5월 15일(목) 한국JCC에서 열린 4차 지부교섭에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사측 교섭위원들은 임금의 정의 및 임금체계 개편, 노조활동시간 요구에 대해 질문했다. 3차 교섭에 이어 4차 교섭까지 두차례에 걸쳐 질의응답은 끝마쳤다. 차기 교섭부터는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서별 담당간부 활동시간 보장 필요

사측은 임금 항목 중 복리후생비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복리후생비를 비롯해서 어떤 형태의 금품이라도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

제로 지급된다. 당연히 복리후생비도 임금의 일부이다.

노조활동시간 요구는 각 부서별 업무를 담당하는 노조간부의 활동시간과 지부 총회시간을 요구한다. 부서별 간부의 활동시간은 노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구이다.

임금인상 논의는 5월 마지막 주부터

지부 요구안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끝났다. 이제 요구안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지부는 5월 마지막 주부터 임금인상안을 다룰 예정이다. 질의응답을 마친 사측의 고민이 깊어져야할 시점이다.

4차 교섭 속기록

성실하고 빠른 교섭 기대한다!

사 :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렸는데 다행히 그쳤다. 중앙교섭에서 위원장님이 안전 부분 상당히 강조했다. 통일요구안으로 작업중지권 다루고 있는데 지부교섭에서도 안전 부분은 노사간에 중요한 이슈이다. 사측도 안전에 상당히 관심 갖고 있다. 나머지 요구안도 성실히 교섭할 준비가 되어있다.

노 : 회사 어렵다는 얘기 안해서 감사하다. 노측 교섭위원도 위원장과 민주당 앞에서 노조법 전면개정 집회 진행했다. 21대 대선 요구안도 전달했다. 갈수록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지부교섭은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1) 복리후생비는 성격에 따라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 복리후생비도 당연히 노동 제공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다. 다만, 일부 항목은 임금성이 모호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2) 노조활동시간 중 담당 간부는 누구를 말하는지? 지부 총회 참여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 조직, 교육, 선전, 노동안전, 미조직, 총무

등 부서별 간부를 말한다. 혹시 직책이 다르더라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라면 포함한다. 총회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 대상이다.

3) 노조활동시간은 각 사업장별로 보장된 시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여해달라는 것인지?

=> 기존에 합의된 부서 활동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적용하고 없는 사업장은 신설하는 것이다. 지부총회는 아무 지회도 없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이다.

4) 사업장 공동요구안 중 확대간부 교육시간은 2019년 지부교섭에서 합의한 바 있는데 확대하자는 것인지?

=> 기존에 8시간 합의했는데 2박3일(24시간)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근데 이 요구안은 지부교섭에서 다룰건 아니고 사업장에서 다룰 요구이다.

사 :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다.

노 : 오늘 2차까지 질의응답 마쳤다. 앞으로 성실히 빠르게 교섭했으면 한다. 중앙교섭 흐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부교섭 흐름을 만 들어가면 좋겠다.

*** 차기 교섭 : 5/22(목) 14:30 코스모링크**